

발행인: 정진석 | 편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5 사목센터 3층 문화홍보국 | 홈페이지: www.catholic.or.kr



〈예수님의 빈 무덤에 나타난 천사와 여인들〉, 12세기, 채색삽화, 아르메니안성당,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
화
해
설**

이른 새벽에 신심이 깊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사용할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으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를 가리키며 그분께서 더 이상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생명의 구세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하단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아채지 못한 채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며, 푸른 배경은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웅약하라, 하늘 나라 천사들 무리,

환호하라, 하늘 나라 신비,

구원의 우렁찬 나팔 소리,

찬미하라, 임금의 승리,

땅도 기뻐하라, 찬란한 광채 너를 비춘다,

영원한 임금의 광채 너를 비춘다,

비취진 땅아, 깨달아라, 세상 어둠 사라졌다,

기뻐하라, 자모신 거룩한 교회,

위대한 광명으로 꾸며진 거룩한 교회,

백성의 우렁찬 찬미 소리 여기 들려온다,

〈부활찬송 중에서〉

부활 성야 미사

제1부: **빛의 예식**(불 축복과 부활초 점화, 행렬, 부활 찬송)

제2부: **말씀 전례**

제1독서 창세 1,1-2,2<또는 1,1,26-31>

화답송 시편 104(103),1-2ㄱ.5-6.10과 12,13-14
ㄴ.24와 35ㄷ(◎30 참조)

◎ 주님, 주님의 영을 보내시어,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2독서 창세 22,1-18<또는 22,1-2,9ㄱ.10-13,15-18>

화답송 시편 16(15),5와 8,9-10,11(◎1)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주님께 피신하나이다.

제3독서 탈출 14,15-15,1ㄱ

화답송 탈출 15,1ㄴ-2,3-4,5-6,17-18(◎1ㄴㄷ)

◎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제4독서 이사 54,5-14

화답송 시편 30(29),2와 4,5-6,11-12ㄱ과 13ㄴ(◎2ㄱ)

◎ 주님, 주님께서 저를 구하셨기에, 제가 주님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5독서 이사 55,1-11

화답송 이사 12,2-3,4ㄴㄷㄹ.5-6(◎3)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제6독서 바룩 3,9-15,32-4,4

화답송 시편 19(18),8,9,10,11(◎요한 6,68ㄷ)

◎ 주님,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제7독서 에제 36,16-17ㄱ.18-28

화답송 시편 42(41),3,5ㄱㄴㄷㄹ.43(42),3,4(◎42(41),2)

◎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주 하느님, 제 영혼이 주님을 이토록 그리워하나이다.

서간 로마 6,3-11

화답송 시편 118(117),1-2,16-17,22-23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복음 마르 16,1-7

제3부: **세례 예식**(호칭기도, 세례수 축복, 세례 서약 갱신)

제4부: **성찬 전례**

영성체송 1코린 5,7-8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예수 부활 대죽일 미사

입당송 시편 139(138),18,5-6 참조

다시 살아나도 저는 여전히 당신 안에 있나이다. 알렐루야.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어 주셨나이다. 알렐루야. 당신 지혜는 놀라운 일 이루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10,34ㄱ.37ㄴ-43

화답송 시편 118(117),1-2,16-17,22-23(◎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 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2독서 콜로 3,1-4<또는 1코린 5,6ㄴ-8>

부속가

파 스 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시리네. 마 리 아, 말하여라. 무 었 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 격 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게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 금 님, 자 비 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1코린 5,7ㄴ.8ㄴ

◎ **알렐루야.**

○ 우리의 파스카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음 요한 20,1-9<또는 마르 16,1-7, 또는 저녁 미사에서 는 루카 24,13-35>

영성체송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절 상식

부활 시기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의 50일간으로, '파스카 시기' 라고도 합니다.

이 50일 동안에는 평일에도 전례를 거행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상징으로 부활 초를 켜 놓습니다.

부활 시기의 첫 8일 동안은 부활 팔일 축제로 지냅니다. 팔일 축제의 전례는 파스카 신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활 초

크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부활 성야의 '제1부 빛의 예식' 때에 특별한 예식과 함께 축복된 초로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초는 보통 밀랍으로 만들어지는데, 부활 성야 전례가 시작될 당시 벌은 동정성을 지닌 피조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교부들은 벌을 그리스도의 정배인 교회와 동정 마리아에 비유하였고, 벌꿀에서 추출한 밀랍은 동정 잉태의 결실로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밀랍으로 만들어진 밀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초는 보통 밀랍으로 만들어지는데, 부활 성야 전례가 시작될 당시 벌은 동정성을 지닌 피조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교부들은 벌을 그리스도의 정배인 교회와 동정 마리아에 비유하였고, 벌꿀에서 추출한 밀랍은 동정 잉태의 결실로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밀랍으로 만들어진 밀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 초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 십자가 위아래에 그리스 문자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인 알파(A)와 오메가(Ω)가 쓰여져 있으며, 그 해의 연수(年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작이요 마침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다섯 상처(五傷)를 기념하기 위하여 다섯 개의 향 덩이를 십자가의 중앙과 끝 부분에 꽂습니다.

사제나 부제가 부활 초를 높이 들고 "그리스도 우리의 빛"을 3번 외치며 제단 앞까지 행렬하는 동안, 신자들의 초는 차례로 부활 초에서 점화됩니다. 이 행렬은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상기하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한 8,12)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상기시킵니다.

'부활 찬송'(Exultet) 가운데 "이 밤은, 주 친히 우리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어, 홍해 바다 마른 발로 건네주신 거룩한 밤. 거룩한 이 밤은, 불기둥의 빛으로써 최악의 어둠을 몰아낸 밤... 주님께 이 초를 성대하게 봉헌하오며, 별들이 만든 것을 성직자의 손으로, 거룩한 교회가 봉헌하나이다" 라는 우의적(寓意的)인 표현은 부활 초의 의미를 잘 나타내 줍니다.

부활 초는 독서대 옆에 마련된 부활 초 촛대에 세워져 부활 시기 동안 전례가 거행될 때마다 밝혀집니다. 부활 시기가 끝나면 적절한 곳에 보관하며, 세례식과 장례 미사 때에도 부활 초를 켜 놓습니다.

부활 달걀

예수 부활 대축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선물로 주고받기 위해 예쁘게 장식한 달걀을 일컫습니다. 옛날부터 달걀은 봄(春), 풍요



(豐饒), 다산(多産) 등 보이지 않는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죽은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깃들여 있어 언젠가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달걀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하는 것에 비유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이러한 의미를 갖는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기원인 부활과 연관시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부활한 돌무덤을 달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본래 부활 달걀은 승리의 색으로 '죽음을 쳐 이긴 새 삶'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물들여졌었다고 합니다. 부활 대축일에 약간의 색을 칠한 달걀을 맨 처음 사용한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었으며, 오늘날처럼 부활 대축일에 달걀을 주고받는 관습은 17세기경 수도원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일반에게 퍼져 나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늘날 아름다운 색깔로 예쁘게 장식된 부활 달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줍니다.

보고 믿었다



구요비 읍신부 | 프라도회 한국 책임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이제는 고인이 된 친지들이 흘러가는 세월과 더불어 너리와 추억에서 잊혀지기보다 더 생생하게 떠오르고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단지 나의 기억력이 비상하기 때문이 아니고 어쩌면 이분들이 계속 존재하며 살아 계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는 예감이 들곤 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신약성경의 가장 오래된 진술인 코린토 전서 15장을 읽다보면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죽은 이들의 부활을 먼저 전제한다(13절, 15절, 16절):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희랍의 현자들이 간파한 ‘영혼의 불멸성’이나 불교의 가르침인 ‘환생(re-incarnatio)’이 죽음 저 너머의 지속적인 생명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염원과 희망을 표현하며, 또 이를 나름대로 통찰하는 것은 아닐까? 이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경축하는 주님 부활에 대한 전이해(前理解)라고도 하겠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본 ‘빈 무덤’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죽음은 결정적이지 못하다. 하느님의 아들로써 지니신 신성(神性)으로 그분은 바로 하느님의 생명(生命) 안에 머무르시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는 생명만이 있기에 죽음은 결코 하느님에게 속하지 않는다. 죽음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인간성(人性)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성(神性)을 확인해 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어 육신이 영혼과 분리된 뒤에도 육신은 항상 신성과 결합되어 있었다.

“인간의 이 두 구성체인 영혼과 육신 안에 남아 있는 신성(神性)의 단일성으로 이 둘은 다시 결합됩니다. 이처럼 두 구성체의 결합이 분리됨으로써 죽음이 오고 분리된 이들의 결합으로 부활이 일어납니다”(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한편, 빈 무덤 안에서 천사들은 한결같이 ‘그분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되살아나셨다’ (마태 28,6; 루카 24,7; 마르 16,7)고 전한다. 주님의 부활은 하느님의 약속의 실현이다 (요한 20,9). 하느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계약에 충실하시며 당신의 언약이 담긴 말씀에 성실하신 분이시다. 이 하느님의 약속은 인간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말하며 이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와 죽음보다도 더 강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뵈는 길은 오늘 복음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처럼 예수님에게 걸었던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무너져 내린 ‘어둔 밤’ 가운데서도 임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주님과 관계와 사랑에 충실할 때이다.

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그대는 죽지 않으리!” 라고 말하는 것이다(가브리엘 마르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처지에서도 ‘인생은 아름다워라!’ 라는 생의 긍정 안에서 사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또한 인간이 이룩하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겪는 암울한 부조리와 모순 가운데서도 이 역사를 긍정하고 인류의 공동선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실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었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요한 20, 2).”

죽어야 사는 이치



강인봉 베네딕토 | 가수

“예 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마도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주고받을 인사말이겠지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로 자리매김한 성탄을 더욱 기다릴지 몰라도 부활이야말로 저희들 미약한 믿음에 뿌리가 되는 사건이자, 신비요 은총입니다.

이제 미사를 마치고 성당 문밖으로 나서면 예쁜 부활 달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주일학교 학생이나 교사, 어머님들이 정성껏 삶고 그래서 포장해 놓은 달걀이지요. 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만 뭐 좀 비싼들 어떻습니까? 어차피 달걀 값이라기보다는 아무 생명이 없는 듯 보이던 달걀에서 병아리가 탄생하듯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 한편으로는 늘 예산이 뽀뽀한 주일학교나 교회 안의 각종 신심 단체에 이런 기회에 한 번쯤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고 생각하면 될 일 아닐까요?

조금 식상한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논리상으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어찌 쓴웃음이 나오는 유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부활’이라는 초점으로 바라보면 이보다 더 정확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부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은 척하거나, 거의 죽다 사는 정도로는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깐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일이 바로 ‘죽은 자식 다시 살리기’입니다. 차라리아무도 모르는 신인을 발굴해 인기인으로 키워내는 게 예산도 덜 들어가고 힘도 덜 든다는 거지요. 일단 스타덤에 올랐던 사람들은 자신이 내리막을 걷고 있거나 이미 바닥으로 내려앉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 데뷔 때의 첫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매년 적은 숫자이지만 재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성공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잘 나가던 때의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새로운 각오로 활동을 재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부활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죽어야 사는 이치이겠지요.

음악, 연기, 체육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시상식이 열려서 사람들의 성과를 치하합니다. 어떤 부문도 더하고 덜함 없이 다 영광스러운 수상이겠지만 저는 늘 ‘올해의 재기’ 부문에 주목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이뤄 낸 성과에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부활도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15

유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태아 진단(胎兒 診斷)은 비도덕적이다

“만일 태아 진단이 배아의 생명과 온전성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들을 하나의 개체로서 보호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 진다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만일 결과에 따라서는 유산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도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엄격히 도덕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 <생명의 선물 제1부 2항>.

언젠가부터 양수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산모가 태아 진단을 받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태아 진단은 태아의 건강을 미리 알아서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형이나 유전적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낙태를 권고하고 시술해주는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를 “장애나 질병으로 손상을 입은 생명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사고에 근거”한 “우생학적 낙태”라고 비판합니다(생명의 복음 14항). 이런 의도를 가진 부모뿐 아니라 이런 의도로 태아 진단을 하거나 낙태를 시킬 의도로 태아 진단을 받도록 태아의 부모를 유도하는 의사나 의료 단체도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공범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2009년 부활 메시지



감사와 사랑을 통해 부활의 삶을 살아갑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온 세상에 신비로운 생명의 새싹이 움터 나오는 곳곳 한 봄과 함께 기쁜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세상 모든 이들과 특별히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죄인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죄와 불의와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 생명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사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1코린 15,14 참조). 그

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지닌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라고 하셨던 약속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과거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용기백배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교회를 세우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무엇이 우리를 죽음과 죄악에서 구해주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부활을 믿는 것이며 그리스도 신자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부활을 맞이해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삶이란 무엇보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마태 19,19). 우리가 변화된 부활의 삶을 충실히 살 때 우리 사회에는 주님의 부활의 은총인 평화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구는 지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감사과 사랑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남기고 가신 사랑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와 사랑의 운동이 종교를 넘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사회 전반에 영양과 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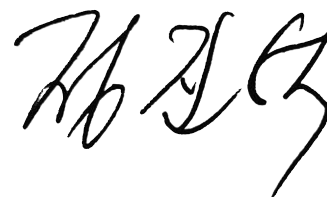
을 제공하는 범국민적인 정신 운동으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부터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감사와 사랑의 실천이라도 많은 이들이 함께한다면 우리 사회에 좋은 열매들을 맺고 결국에는 큰 기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지혜롭게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와 사랑의 운동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울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은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로마 13,10 참조).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감사와 사랑의 운동이 우리 사회에 빛과 희망을 다시 비출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천 년 전 주님의 부활을 통해 초대 교회는 절망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믿음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함께해요, ‘감사’와 ‘사랑’ 운동

서울대교구는 지난 4월 5일로 김수환 추기경님의 공식 추모기간을 마무리하면서, 평화방송·평화신문과 함께 ‘감사와 사랑 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마지막 말씀에 화답하며, 우리 역시 김 추기경님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대교구 내 모든 성당에 배포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스티커 붙이기 역시 이 운동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 뒷면에는 구체적인 일상 삶 안에서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5가지 실천사항이 담겨있습니다.

♥매일같이 감사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1. 만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2. 나의 삶에 “감사합니다.”
3. 내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합니다.”
4. 내 손이 필요할 때 “도와줍니다.”
5. 나의 삶을 “반성합니다.”



부활시기의 ‘감사’와 ‘사랑’ 운동

“내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합니다.”

이 ‘감사와 사랑 운동’은 시기별로 적절한 주제를 하나씩 택하여, 특별히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선 5월 31일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이어지는 부활 시기 동안은, “내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합니다.”로 정했습니다. 화사한 봄기운이 만연한 이 시기에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생명의 사랑을 나눕시다. 특별히 가정의 달인 5월을 보내며 자녀, 부모님 등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정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실천사항〉

- 1) 곁에 있는 이들(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에게 일 주일에 한 번, 사랑의 문자 보내기
- 2) 내가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www.catholic.or.kr)에 ‘감사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나눔 방이 마련됩니다. 메인화면에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배너를 클릭하신 후 ‘감사와 사랑 나누기’ 방으로 들어가셔서 사랑의 메시지, 한줄사연, 사랑을 표현하며 느꼈던 감동 체험사연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오늘(4월12일)은 '예수 부활 대축일'입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 다음 날인 4월13일(월)은 교구청 휴무입니다.

신임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지난 3월30일, 건강상의 이유로 교구장직 사임을 청원한 최덕기 주교의 사임 의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부교구장인 이용훈 주교가 수원교구 교구장직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이용훈 주교는 2003년 수원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되었으며, 2008년 교구장 승계권이 있는 부교구장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태릉선수촌 경당 축성식

태릉선수촌 경당(담당 이준호 신부) 축성식이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의 집전으로 있습니다. / 문의: 727-2078
 · 때, 곳: 4월22일(수) 오후 2시, 국민체육공단 체육과학연구원 내 필승주체육관 2층 태릉선수촌 경당

보라매 I Will센터 개소식 및 축성식

보라매 I Will 센터(담당 김성훈 신부) 개소식 및 축성식이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의 집전으로 있습니다.
 · 때, 곳: 4월21일(화) 오전 10시10분~12시, 시립 보라매 청소년 수련관 / 문의: 836-1387, 8(www.boramyc.or.kr)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4월18일 한희동 그레고리오 신부(68세) 2003년, 용인
- 4월19일 신인균 요셉 신부(92세) 1996년, 용인

가톨릭성가 가사 수정 안내

교황청 경신성사성에서는 전례 거행, 성가, 기도에서 거룩한 네 글자(YHWH)로 표현된 하느님 이름을 사용하거나 발음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느님의 이름에 관한 지침을 주교회의에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성가에 나오는 '야훼' 라는 표현은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의 검토와 상임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새롭게 발행할 예정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수락산성당 사무원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PC(한글, 엑셀) 및 회계가능자 / 문의: 934-0081(면접은 개별통보함)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제출서류 반환 안 됨) / 4월21일까지 접수

서울대교구 방배4동성당 사무원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PC(한글, 엑셀) 및 회계가능자(경력자 우대) / 문의: 3477-1900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 4월22일까지 접수(제출서류 반환 안 됨)

교구청 알림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문의: 727-2065)

- 회비: 각 2만5천원(본당 신청서로 접수)
- 전례학교(4월15일까지 접수)
 - 대상: 본당 전례분과위원, 일반 교우
 - 때, 곳: 4월22일-5월20일 매주(수) 오후 7시 30분-9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함께하는 여정 2단계(4월16일까지 접수)
 - 대상: 함께하는 여정 1단계 수료자
 - 때, 곳: 4월23일-5월14일 매주(목) 오후 2시-4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가톨릭 유아교육 담당교사들을 위한 생태월례강좌 2

- 유아를 위한 울동, 이렇게 해봐요(강사: 송영기)
- 대상: 가톨릭 유치원 · 어린이집 유아교육 담당교사 및 관심자 50여명 / 회비: 1만원
- 때, 곳: 4월18일(토) 10시-12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문의: 727-2283 환경사목위원회

본당 성소후원회 임원 연수 안내

- 때: 4월17일(금) 오전 10시-오후 4시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727-2123, 4

2009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 때, 곳: 4월22일(수) 오전 10시30분, 과천 서울랜드 / 기념미사 집전: 김운회 주교
- 문의: 727-224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는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	4. 19. 14시-17시	사당동 본원	010-2704-6186
그리스도왕 선교 수녀회	4. 19. 14시	수녀회성북동한국본부	011-9386-3241
돈보스코 여자재속회(VDB)	4. 19. 10시-17시	살레시오 3층(신길동)	011-797-3115
마리아 수도회(남자)	4. 19. 14시	서울본원및각지역본원	010-3773-4044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4. 19. 13시-15시	안산 수련소	010-2882-6227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4. 19. 14시	가리봉 수녀원	016-570-0939
삼성산 성령 수녀회	4. 19. 14시-17시	수녀원 본원	010-2738-0039
샬트르 성바로 수녀회(서울관구)	4. 19. 14시-18시30분	수녀회본원(명동성당뒤)	3706-3233
세례자 성 요한 수녀회	4. 19. 15시	수녀회 수원 본원	010-2432-4230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	4. 19. 14시-17시	돈암동 본원	010-7101-9302
성 빈첸시오 아바오 사랑의 딸회	4. 19. 14시	군포 수녀원	010-6625-0927
순교자의 모후 전교 수녀회	4. 19. 14시	갑곶성지 수녀원	010-2954-1685
예수 성심 시녀회	4. 19. 14시	태릉성당 수녀원	010-2820-1011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자매회	4. 19. 13시-14시	음성 꽃동네	011-806-6879
인보 성체 수녀회	4. 19. 13시30분	수유리 수녀원	011-380-5159
위로의 성모 수녀회	4. 19. 14시	성북동 본원	010-2210-3660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4. 18-19. (1박2일)	성북동 수도원	010-9890-8809
한국 성모의 자애 수녀회	4. 19. 14시	계산 서원	010-9407-6219

평화방송 · 평화신문은 매주 화요일에 은인과 후원자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평화방송 텔레비전

故 김수환 추기경 추모 DVD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출시

그리운 추기경님,
또 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따뜻한 말씀을 이제는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러나 기억 속에 남겨진 우리 시대 큰 어른의 넉넉하고 따뜻한 목소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가슴을 살포시 어루만져 줍니다. 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삶과 육성, 그리고 수많은 추도 인파로 채워졌던 5일간의 장례기간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셨던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추모 DVD로 영원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가격: 정가 15,000원(단체 구입시 특별할인합니다)
- 문의: 추모영상팀 080-000-7110(www.pbc.co.kr)

평화방송 라디오

FM 음악공감

클래식 음악부터 크로스오버, 영화음악, 그리고 월드뮤직까지 마음을 움직이는 다양한 음악과 함께하는 ‘FM 음악공감’이 평화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FM 음악공감’은 청취자들이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음악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평소 접하기 힘든 오페라나 월드뮤직 역시 전문가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름다운 동화나 숨겨진 음악이야기를 들려주는 ‘생각이 열리는 음악나무’나 맛있는 음식과 궁합이 맞는 음악이 함께하는 ‘맛있는 음악 레서피’ 등 색다른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제작: 박군수 PD / 진행: 김수영
- 방송일시: 매일 오전 9시~11시

2009 평화방송 · 평화신문 특별한 성지순례

1. 프랑스 와이너리 및 세계 문화유산 수도원 순례
“프랑스 일주” - 6월26일 출발(9박10일)
소믈리에 동행 / 와인 특강 진행
2. 세계 문화유산 지정 수도원 순례
“독일-체코-오스트리아”
4월17일, 5월15일, 6월5일 출발(10박11일)
3. 교회 영성의 발자취를 따라
“이탈리아 일주” - 5월15일 출발(8박9일)
4.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도보 순례
“스페인 일주”
6월21일, 6월28일, 7월5일, 7월12일 출발(11박12일)

※ 문의: 2266-1591~2 / 본당 및 단체별 성지순례 문의 환영함

고색 한지 공예 전시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 관람 문의: 011-9908-2629, 515-7851



압구정성당에서는 4월19일(일)~24일(금), 우리나라 전통 한지 공예를 이용하여 성물을 창작하는 정신자(벨라벳다, 발산동성당)의 고색 한지 공예 전시회를 연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한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우리 전통 문양, 한지의 고풍스러운 멋과 함께 어우러진 많은 성물들(감실, 부활초대, 삼위일체등, 목주등, 독서대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쌍 마르크 합창단’ 내한 공연

· 입장권: R석 2만 원, S석 1만 원 | 예매 및 문의: 983-2274



전 세계 감동의 화제작 영화 ‘코리스’의 주역인 쌍 마르크 합창단이 4월20일(월) 오후 7시30분, 미아동성당에서 내한 공연을 갖는다. 교회음악에서부터 영화음악까지 시대와 장르를 망라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영혼을 울리는 완벽한 하모니의 이 합창단 공연에는 소프라노 박성희와 PBC 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이 우정 출연한다. 본 공연 수익금은 불우 청소년 돕기에 사용된다.